논 술

※ 다음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1)

옛날 순(舜)임금이 기(夔)에게 "너로 하여금 음악을 관장하게 하니 천자와 경대부의 장자(長子)들을 가르쳐라."라고 명하였다. '음악을 관장한다'는 것은 단지 음악을 관장한다는 의미일 뿐인데 어찌하여 순임금은 기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였을까.

사람은 저절로 선해질 수 없고, 반드시 가르침을 받은 뒤에야 선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 감정들이 서로 부딪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음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신체도 조화를 잃어 행동이 모두 올바른 법도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이 여러 악기의 음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마음속에 넣어 주어 그 혈맥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화평하고 온화한 뜻을 발동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가 완성되자 백관의 우두머리들이 진실로 화합하고 우빈(虞賓)*이 덕으로 사양하였다. 그 효과가 이와 같았으니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천자는 사면(四面)에, 제후는 삼면(三面)에 악기를 걸어 두고 연주한 뒤에야 음식을 먹었고, 천천히 걸을 때는 사하(肆夏)라는 악곡을 연주하고 빨리 걸을 때는 채자(采齊)라는 악곡을 연주하였으며, 서민들도 까닭 없이는 금슬(琴瑟) 연주를 그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음악이 아니면 성인의 도를 행할 수 없고, 제왕의 통치를 이룰 수 없고, 천지만물의 정을 조화시킬 수 없다. 음악의 공덕(功德)이 이와 같이 넓고 깊고 높은데도 하은주(夏殷周) 삼대 이후로 오직 음악만이 다 사라졌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좋은 정사와 착한 풍속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음악이 망했기 때문이니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우빈(虞賓):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준 요(堯)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를 가리킴.

(2)

예술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그 효용만 강조하는 풍조는 예술가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보들레르는 당대 사람들이 예술의 근본 개념을 망각하고 오직 단기적인 효용에만 집착하여 시에서 어떤 교훈을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들레르가 비판했던 예술 효용론자들은 예술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용성을 가져야 하며 상황에 호응하고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어느 때 어떤 문제에 몰입하여 있으면, 예술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가 예술에게 역할을 희망할지언정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예술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기본 원리는 영감의 자발성과 창조의 자유에 있는데 이미 정해진 목표를 예술에 부과하게 되면 그 자발성과 자유가 억압되어 예술 자체를 몰락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효용론자들이 예술을 싸구려로 취급하고, 예술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토록 효용성

☞ 뒷장에 계속

을 주장하면서도 예술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유용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예술의 이상이 우리 시대 공통의 이상과 합치하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또는 "왜 예술은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소설가인 프루스트는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예술이 현실과 괴리되어 유용한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이 어떠한 절차로 효용성을 발휘하는지를 그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용성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철없는 것이어서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따 달라고 보채는 어린애의 욕구와 비슷하다." 프루스트는 예술에게 특정한 목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의 지침이 없어도, 예술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희원(希願)과 필요에서 절대로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은 예술의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예술가들은 익명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은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이제 많은 예술품들이 산업 경제의 대량생산 모델을 좇아 제작되고 판매되며 유행이 끝난 후에는 시장에서 사라진다. 일부 비판적 이론가들은 상업화가 예술의 타락과 소외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술 산업은 창작품을 천박한 상품으로 만들어버린다. 예컨대 완전무결하게 구성된 색채들이 흔해빠진 벽지의 무늬로 응용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 시장의 활성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예술품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잠재적 예술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또 예술 시장의 팽창과 활성화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예술계로 유인하고 안정된 창작 활동을 보장하여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신진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독립적인 상황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제 예술은 다른 어느 분야에 못지않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소설이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되어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기도 하고, 전위적 비디오 예술이 음악 전문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도 하며, 순수 미술 작품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나 산업적 발명에 영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제 예술이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술은 화랑,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처럼 직접적으로 예술 상품을 다루는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광고, 출판, 관광, 실내장식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예술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산업 유발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많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예술 산업은 매년 110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13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극이나 미술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시를 찾는 예술 관련 관광객들은 연간 25억 달러를 뉴욕시내에서 소비한다. 뉴욕시에서는 예술 산업이 광고, 호텔 경영, 기업 운영 상담, 컴퓨터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 뒷장에 계속

(4)

과학은 진리를 밝히고 예술은 감상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만족을 예술이 추구하는 미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 예술 작품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나 양상이 감상자마다 일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아궁이가 고르게 집을 데우는 것처럼 좋은 과학 이론은 그것에 관련된 사실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과학과 예술은 상징화라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과학 이론이 사실을 설명하는 상징적 체계라면 예술 작품도 사실에 대한 상징으로 존재한다. 예술 작품은 사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상징화를 통해 미를 추구한다. 그 같은 상징화의 능력이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미래의 우연성에 대처할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이 과학처럼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과학적 영감을 자극하고, 시장가치의 실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인간 심성의 순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모든 가치가 현실적 유용성으로 환원된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예술의 심미적 경향을 현실적 유용성과 결합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견해를 고수한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주는 만족감과 예술 작품이 추구하는 미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의 감상자가 경험하는 만족의 수준이나 양상은 물질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심미적인 경향이 고통을 불러오는가 하면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심미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의 상징화 작업을 현실적 유용성과 결부시키는 견해는 부적절하다. 그 작업은 인간의 어떤 성향에서 비롯하며 인간으로서 그 성향을 억누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심미적인 경험을 실현하는 예술가는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와 같거나 충분한 물을 발견한 후에도 끈덕지게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다. 예술은 실용적이 아니라 충동적이다.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짖으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대상을 상징화한다. 현실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단지 멈출 수 없어서,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인간은 상징화를 계속한다.

<유의 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총 1,600±100자가 되게 할 것.